



2026. 8. 14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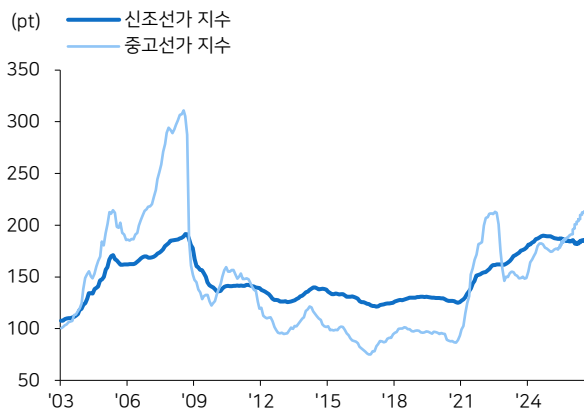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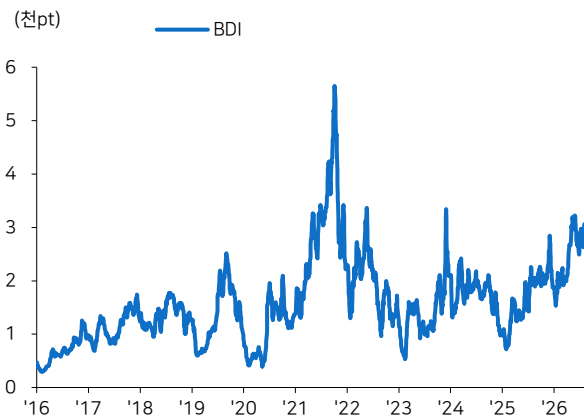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3.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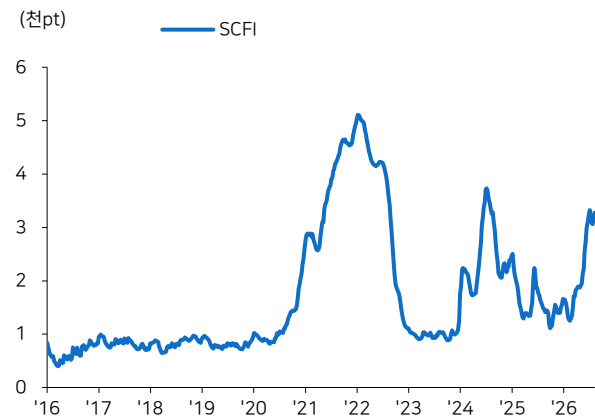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39.0p (-10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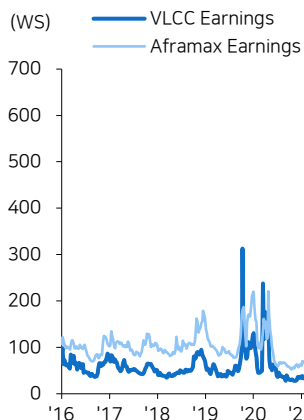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76.1 (+70.2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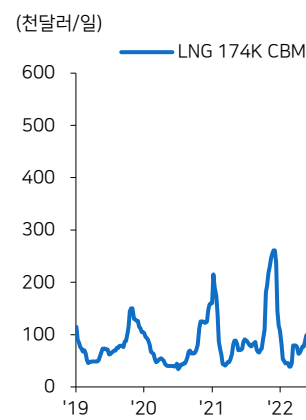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74.6WS (+19.7p WoW)



LNG Spot 운임

63.4천달러 (-16.4p WoW)



©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트럼프, 외국 조선소서 함정 2 척까지 건조 조건부 허용 (서울경제)

<https://zrr.kr/N0V9qZ>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소 투자 및 인력 양성 등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수상전 투함과 보급·수송함을 일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됨. 해당 각서는 핀란드와의 중형 쇄빙선 건조 양해 각서를 모델로 삼아 미국 내 건조 역량 구축과 생산 공백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짐.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며, 해외 조선소의 독점 기술 라이선스 제공과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의 조건이 함께 부과된다고 알려짐.

원자력 추진선 시대 연다...정부-K-조선, 차세대 선박 시장 선점 나서 (이투데이)

<https://zrr.kr/8n0Ssw>

정부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4,866억원을 투입해 선박용 용융염원자로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나서는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보도됨. 한국원자력연구원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거리 항해와 탄소 감축에 유력한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 기반을 다질 예정으로 전해짐. 이미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이 각각 SMR 및 MSR을 적용한 컨테이너선 설계로 미국선급협회(ABS)의 기본인증을 획득하며 기술 경쟁에 앞서가고 있으나, 실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 및 규제 준비가 핵심 변수로 알려짐.

한화오션, 해상풍력 발전·운영까지 품는다..."상반기 해외법인 4 곳 신설" (뉴시스)

<https://zrr.kr/19nmPT>

한화오션이 해상풍력과 해양플랜트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싱가포르 및 마셜제도 등에 총 4곳의 해외 중속법인을 신설한다고 보도됨. 신설된 법인은 한화오션 오프쇼어 홀딩스, 한화오션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센터, 오션 윈드 파워 홀딩스, 오션 윈드 파워 1 등으로 전해짐.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소유·운영부터 발전사업, 설비 설치 및 전력 공급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글로벌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라고 알려짐.

삼성중공업 '차세대 선박연구센터' 출범...AI·친환경 선박 고도화 (이투데이)

<https://zrr.kr/uLstq7>

삼성중공업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SHI-KAIST 차세대 선박연구센터'를 출범하고 AI, 친환경 연료, 디지털 트윈, 로봇틱스 등 미래 조선해양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보도됨. 양측은 자율운항 AI, 무탄소·저탄소 연료 추진, 스마트 조선소 및 디지털 트윈, 조선해양 특화 로봇틱스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공동 연구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1995년부터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현장 공정 자동화와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조선해양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전망이다이라고 알려짐.

HJ 중공업 상반기 영업이익 8 배 급증...조선이 실적 견인 (국민일보)

<https://zrr.kr/VUJexN>

HJ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조2,713억원, 영업이익 894억원, 당기순이익 88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대규모 흑자 전환과 함께 영업이익이 8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됨. 실적 개선은 조선 부문이 주도했으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컨테이너선 건조 공정 본격화와 특수선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철저한 원가 절감이 주효했다고 전해짐. 건설 부문 역시 공공공사와 대형 국책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짐.

Brazil pre-salt field hits historic 4-billion-barrel milestone (Upstream)

<https://zrr.kr/KULiId>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Petrobras가 브라질 앞바다 산투스 분지의 프리솔트 유전인 Tupi 유전에서 누적 생산량 40억 배럴을 달성하며 회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됨. 2010년 1월 Cidade de Angra dos Reis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를 통해 상업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9기의 FPSO가 투입되어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해짐. Petrobras의 전체 프리솔트 지역 생산량은 2026년 2분기 기준 일일 278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회사는 2030년까지 이를 최대 340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